‘빅초이’다 나왔니?

2군경기서 홈런 등 컨디션 회복…오늘 1군 복귀

‘빅초이’ 최희섭(28·사진)이 드디어 1군에 복귀한다. 무대는 12일 광주 삼성전 4번타자다. 5월 22일 광주 롯데전 이후 꼭 51일만이다. 반면 10년 연속 3할타율에 도전중인 ‘스나이퍼’ 장성호(30)는 무릎부상이 악화돼 전반기를 마감했다.

서정환 KIA감독은 11일 광주 삼성전에 앞서 “(최)희섭이의 컨디션이 좋다. 오늘(11일) 2군 경기서도 홈런을 날렸다. 12일 삼성전에서 부상중인 장성호 대신 최희섭을 선발 출장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희섭은 이날 광주무등경기장에서 열린 상무와의 2군경기에서 4타수 2안타, 1홈런, 2타점, 1삼진을 기록, 녹슬지 않은 거포 본능을 뽐냈다.

타석에 많이 서기 위해 생애 첫 1번타자로 나선 최희섭은 1-8로 뒤진 8회말 상무 언더핸드 투수 신주영(전 한화)을 상대로 우중월 120m짜리 2점 홈런을 뽑아냈다. 1회 첫 타석에선 중전안타를 쳤고, 3회 두번째 타석은 2사 만루에서 안타성 직선타를 날렸으나, 우익스의 글러브에 그대로 빨려 들어가 아쉬움을 남겼다.

최희섭은 경기 후 “LA 다저스 시절 정도는 아니지만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 컨디션이나 타격감은 무척 좋은 상태다. 몸무게도 많이 빠졌다. 재활기간 중 상대 투수들에 대한 분석도 함께 한 만큼 좋은성적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투지를 불태웠다.

이건열 2군 타격코치도 “팀에 첫 합류했을 때보다 배트스피드가 훨씬 나아졌다”며 최희섭을 높게 평가했다.

주전들의 줄복귀와 최희섭의 가세로 KIA의 전력도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1군에 심재학이 가세했고, 조만간 이종범도 1군 엔트리에 합류할 예정이다. 또 윤석민과 이대진도 복귀 소식이 들린다.

하지만 악재도 있다. 바로 장성호의 부상이다.

장성호는 이날 오전 대전의 한화 지정병원인 선병원에서 왼쪽 무릎에 대한 재검진 결과 염증이 발견됐다는 소견을 받았다. 장성호는 지난 6월 27일 대전 한화전서 홈으로 쇄도하던 중 신경현의 블로킹에 막혀 왼쪽 무릎부상을 당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남은 시즌 최선 다하겠습니다”

KIA 선수단 선전 다짐

홈피에 악성글 자제 당부

“제발 선수 개인을 공격하는 악성글은 삼가해 주세요.”

올 시즌 꼴찌에서 맴돌면서 팬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는 KIA 선수단이 그동안의 힘든 심경을 털어놨다.

KIA 선수단은 11일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좋은 성적을 내고 인사를 드려야 하지만 그렇지 못해 죄송하다. 남은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전을 약속했다.

선수단은 최근 구단 홈페이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각종 악성 루머와, 유언비어, 비방, 욕설 등에 대한 팬들의 자제도 당부했다.

선수단은 “홈페이지에 실린 팬들의 각종 악성 글들을 보면서 선수단 전체가 큰 상처를 받았다”며 “심지어 가족들마저도 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기를 꺼려한다. 이런 글들로 인해 선수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볼 수 없을 정도로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며 선수단의 침체된 분위기를 전했다.

선수단은 특히 “특정 선수와 코칭스태프에 대한 퇴출릴레이 등 차마 입으로 꺼내기도 힘든 비난들이 많은데, 제발 개인을 공격하는 일만큼은 자제해 달라”면서 “우리의 동료가 매도 당하고 일부 팬들로부터 버림받고 있는 모습 때문에 경기에도 집중하기 힘든 상태”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선수단은 이어 “애정의 비판이 아니고 비난만을 일삼는 글은 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는 승패 여부를 떠나 팬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겠다. 팬들의 격려가 없다면 우리들의 존재도 없다는 점만은 알아줬으면 좋겠다”며 당부의 말도 남겼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KIA 홈피 ‘호사방’ 재개방

“팬 여러분, ‘호사방’을 재오픈 합니다.”

KIA타이거즈가 잠정 폐쇄했던 인터넷 홈페이지 커뮤니티 공간인 ‘호랑이 사랑방(호사방)’을 12일 재 오픈한다.

정재공 KIA 단장은 11일 구단 회의실에서 홈페이지 폐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홈페이지 커뮤니티가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일부 회원들에 의해 악용되면서 각종 유언비어와 허위사실, 욕설 등이 난무해 임시 폐쇄 했었다”면서 “12일 오후부터 재 오픈할 예정이며, 이같은 사례들이 재발할 경우 경찰(사이버 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단장은 “이전에 아이디가 삭제된 회원들은 검토를 통해 아이디를 복귀 시키는 등 모든 팬과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하겠다”면서 “일부 악성 회원들로 인해 타이거즈를 사랑해 주신 많은 팬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탁트인 들판…신나는 질주 11일 벨기에 바레겜에서 프랑스 콩피에뉴까지 펼쳐진 프랑스 도로일주 사이클(투르 드 프랑스) 제3구간 경기에서 선수들이 질주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치로 그라운드 홈런 MLB 올스타 MVP

미국프로야구의 일본인 ‘안타제조기’ 스즈키 이치로(34·시애틀 매리너스)가 올해 메이저리그 ‘별중의 별’이 됐다.

이치로는 11일(이하 한국시간)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AT&T 파크에서 열린 2007년 메이저리그 올스타전 경기에서 아메리칸리그의 5-4 역전승을 이끄는 그라운드 홈런을 작렬하는 등 3안타를 터뜨려 최우수선수(MVP)에 뽑혔다.

올해 78회를 맞은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에서 그라운드 홈런이 나오기는 처음이다.

이날 홈런 3개 등 10안타를 폭발한 아메리칸리그는 1997년부터 올스타전에서 10연승(1무 포함)을 거두면서 압도적인 우위를 지키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11일 열린 미 프로야구 올스타전에서 이치로(시애틀)가 5회 초 투수 크리스 영이 던진 몸쪽 직구를 잡아당겨 우중간 그라운드 홈런을 날리고 있다. /AP=연합뉴스

한국 남자양궁 ‘세계타이기록’

단체전서 4,074점 쏴

제44회 세계선수권

한국 남자 양궁 대표팀이 제44회 세계선수권대회 개인과 단체전에서 가볍게 예선을 통과한 것은 물론, 단체전에서는 세계타이기록까지 세웠다.

한국은 10일(이하 현지시간) 독일 라이프치히 페스트비제 양궁장에서 벌어진 대회 4일째 남자부 예선 단체전에서 4천74점(4천320점 만점)으로 1위에 오르며 16개국이 겨루는 본선에 안착했다.

3명의 궁사가 432발을 쏘는 거리별 예선에서 4천74점은 임동현(21·한국체대) 등 한국 남자 대표팀이 2003년 7월 뉴욕 세계선수권에서 수립한 세계타이기록이다.

개인전에서는 이창환(25·두산중공업)이 90m, 70m, 50m, 30m 거리별 점수(각각 360점 만점) 합계를 겨룬 예선에서 90m(326점)와 70m(346점), 30m(358점)에서 각각 1위를 기록하며 점수 합계에서도 1천369점(1천440점 만점)으로 1위에 올랐다.

2위는 임동현(1천366점). 특히 이창환과 임동현은 70m 예선에서 각각 346점과 345점을 쏘며 1985년 미국 선수가 세운 대회 기록(342점)을 22년 만에 갈아치웠다.

남자부 개인전 본선은 12일, 단체전 본선은 13일, 단체전 결승은 14일, 개인전 결승은 15일 각각 열린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스위스 캔첼라라 3구간 우승

프랑스 도로일주 사이클

스위스의 파비앙 캔첼라라(26·CSC)가 프랑스도로일주사이클(투르 드 프랑스) 제3구간에서 예상을 깨고 우승하면서 ‘옐로저지(종합선두가 입는 노란색 상의)’를 지켰다.

캔첼라라는 11일(이하 한국시간) 벨기에 바레겜에서 프랑스 콩피에뉴까지 펼쳐진 이번 대회에서 가장 긴 236km 구간을 6시간36분15초에 주파했다.

캔첼라라는 결승선 700m를 앞두고 막판 스퍼트를 펼쳐 앞서 달리던 4명을 극적으로 제치고 1위로 통과했다.

스포츠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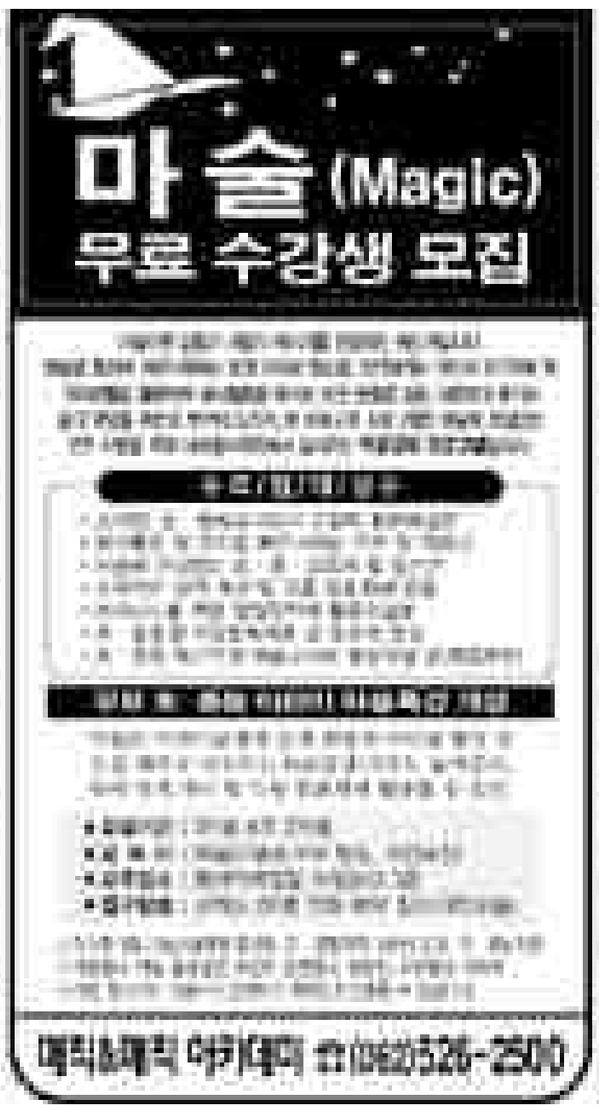
12일(목)

▲코파 아메리카 2007 준결승〈멕시코-아르헨티나〉(09 : 35·SBS스포츠)

▲FIFA U20 월드컵 16강전〈스페인-브라질〉(12 : 05·SBS스포츠)

▲제29회 대붕기 전국고교야구대회〈원주고-공주고〉(13 : 00·KBSN Sports)

▲일본 프로야구〈요미우리-한신〉(17 : 50·SBS스포츠)

▲프로야구〈삼성-KIA〉(18 : 00·KBSN Sports), 〈한화-SK〉(21 : 00·MBC ESPN)

▲피스컵축구 개막전〈성남-볼튼〉(19 : 00·MBC ESPN)